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⑩ 깨달음의 작용—여의주와 빛 (2)



▶한줄 요약
깨달음의 작용으로서의 빛 또는 광명은 부처님 형상을 조성할 때 '광배(光背)'로 나타낸다.

부처님 '광배', 지혜광명 형상화하다

부처님의 형상(形像)을 조성할 때, 필수 도상으로 여의주를 언급한 바 있다. '깨달음의 본체' 로서의 여의주가 불교에 있어 핵심 도상(종교적 기호 또는 상징)임을 설명하였다. 청정범행의 완성이자 궁극의 불성인 법신(法身)으로서의 표상임을 논하였다. 본 글에서는 '깨달음의 작용' 으로서의 빛(光, 광명)에 대해 풀이하고자 한다.

깨달음의 작용으로서의 빛 또는 광명은 부처님 형상을 조성할 때 '광배(光背)' 로 나타낸다. 즉, 여의주와 광배가 없는 불상은 없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여의주와 광배가 없으면, 부처님 형상이라 할 수 없겠다. 그만큼 '여의주와 빛(광배)' 은 깨달음의 본질적 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깨달음과 광명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① 아기 붓다의 몸에서 방사되는 깨달음의 광명. (송광사 팔상탱 부분, 1725년)



그림② 여의주서 분출하는 지혜광명. (송광사 팔상탱 부분, 1725년)

'존재=고통', 고통이 해체되는 과정

깨달음과 관련하여 '광명' 은 가장 처음 언제 등장하는 것일까? 〈사꺄무니 고따마 경〉에는 붓다께서 자신이 어렸던 태자 시절에 잠시 경험했던 깨달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생노병사의 고통' 의 원인을 정사유(正思惟)하다가 12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꿰뚫어 보게 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이 있을 때(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과 죽음은 있게 되는가?" 늙음과 죽음(老死)의 괴로움은 태어남(生)으로 생긴다. ←"무엇이 있을 때 태어남은 있게 되는가?" 태어남은 존재(有)함으로 생긴다. ←"무엇이 있을 때 존재함은 있게 되는가?" 존재함은 취착(取)으로 생긴다. ←취착은 갈애(愛)로 인해 생긴다. ←갈애는 느낌(受)으로 생겨난다. ←느낌은 접촉(觸)으로 생긴다.←접촉은 육입(六入: 여섯 감각 장소)으로 생긴다. ←육입은 명색(名色: 물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생긴다 ←명색은 식(識, 알음알이)으로 인해 생긴다. ←식은 행(行:의도적 행위)으로 인해 생긴다. ←행은 무명(無明)에서 생긴다. 이같이 고통의 무더기(苦蘊)가 발생한다.

붓다는 통찰지로 관통함으로써 고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에게는 '일어남, 일어남'이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眼, cakkhu)이 생겼다. "지혜(智, ñāṇa)가 생겼다. 통찰지(慧, paññā)가 생겼다. 명지(明, vijjā)가 생겼다. 광명(光, āloka)이 생겼다."

여기서 일어남이란 고통의 일어남이다. 〈대념처경〉의 '고성제' 에서는 '나' 라는 존재 자체(오온)를 '고통' 과 동격으로 설명한다. 존재의 실체는 오온(五蘊)이 고인데, 오온의 결과로써의 고온(苦蘊)을 말하고 있다. 즉, 12연기의 역관은 존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역법의 방식으로 통찰한 것이다. 존재라는 덩어리가 바야흐로 분해되는 순간이다.

'12연기' 통찰 순간, 발생하는 빛

가장 밑바탕의 '무명(無明)' 이 타파되는 순간, '명(明, 밝음)' 이 드러났다. 깨달음의 빛! 그것은 "지(智)이자, 혜(慧)이자, 명(明)이자, 광(光)"으로 표현된다. 붓다는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말씀하셨지만, 모두 깨달음의 한순간에 나타난 4가지 측면이라 하겠다. 반야지혜(통찰지)는 사물을 꿰뚫는 레이저 빔의 광선과도 같다. 지혜를 닦을수록 광선은 고밀도가 된다. 이러한 통찰지의 빛이 생긴 것을 "제3의 눈이 열렸다"라고도 표현한다. 반야지혜의 빛이 생긴 모습은 미간 차크라가 열린 형상으로 백호의 여의주로 구현된다. 부처님 형상의 광배(두광 및 신광)의 중심점은 가슴 차크라 또는 미간 차크라가 기점이 된다. 부처님의 본질적인 표현인 여의주에서 깨달음의 빛이 발산되는 것이다. 붓다께서 존재의 일어남의 원인과 멸함의 조건들을 체득하셨을 때 "마치 태양이 허공에 빛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돼 있다.

> "무명 타파하며 생긴 '지혜광명' 통찰지, "제3의 눈"으로 표현도 깨달음의 빛, 불상 광배로 조성 여의주, 광배는 '깨달음의 도상'"

붓다께서 표현하신, 깨달음의 순간에 생겨난 '지 · 혜 · 명 · 광' 을 (필자는) 부르기 쉽게 '지혜광명(智慧光明)' 이라 칭하기로 한다. 지혜광명의 조형적 표현이 광배이다.

"자신에게 향한 애정만한 것이 없고, 곡식만한 재산이 없고, 통찰지만한 광명은 없고, 비야말로 흐르는 물 중에 최상(〈아들에 비견하지 못함 경〉中)"이라고 붓다는 말씀하셨다. 즉, 통찰지를 넘어서는 광명은 없다는 것이다. 통찰지 자체가 빛 그 자체인데, 이 빛으로 수만의 세계를 밝힐 수 있고 삼세의 모든 암흑을 몰아낼 수 있다.

'통찰지의 광명' 광배로 표현

초기경전 상의 '통찰지의 광명' 에 대한 언급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이 있어 밤낮없이 빛을 발하나/ 완전하게 깨달은 그 자야말로/ 빛나는 것 가운데 으뜸이라/ 이 광명은 위없는 밝은 것이라." –〈광채경〉 中

깨달은 자에게서 방사되는 빛이 최고의 빛이라는 설명이다. "이 광명(esā ābhā)이란 부처님의 광명(Buddhābhā)을 말한다. 왜냐하면 지혜의 광명이건, 희열의 광명이건, 청정한 믿음의 광명이건, 설법의 광명이건, 이 모든 광명은 부처님들이 출현(pātubhāva)하심으로서 생겼기 때문이다(SA.i.52)"라는 것이다. 깨달음의 다양한 단계마다 빛이 출현하는데, 이는 곧 붓다의 출현을 말한다.

특히, 설법하실 때 광명에 대해서는 〈대반열반경〉및 〈법화경〉의 '서품' 에서 익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세존께서 이른 새벽녘에 입으로부터 가지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그 밝은 빛이 여러 빛깔이라, 푸르고 붉고 흰빛과 파리(頗璃)빛 등이요, 그 광명은 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비치며, 시방세계에까지 이르러서도 또한 그와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여섯 갈래의 중생으로서 이 광명에 비추인 이면 죄업과 번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다."
–〈대반열반경〉 서품 中

수행 중 만나게 되는 빛의 파장

깨달음의 여러 단계 마다 경험하게 되는 또는 체득하게 되는 빛의 크기와 밀도는 다양하다. 물론 깊은 수행 상태로 들어갈수록 빛의 크기는 커지고, 빛의 밀도는 높아진다. 수행할 때 변하는 빛의 파장을 이하 정리해 보았다.(이하 내용은 영선의 〈위빠사나 명상일기〉참고 요약)

의식이 깨어있을 때의 뇌파는 베타파(Beta waves)인데, 이는 흥분 · 긴장 · 혼란 · 초조를 초래한다. 우리가 영위하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베타파의 상태이다. 눈을 감고 몸이 이완되는 명상의 상태에서는 알파파(Alpha waves)가 작동한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근육도 이완되며 편안한 상태에서 의식이 집중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세타파(Theta waves)의 상태가 되는데 이는 알파파보다 더 느린 파장이며 얕은 수면 상태와도 같다.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로 무의식 속의 기억이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통찰력과 초능력이 발휘되기도 하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신적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창조적인 힘이 발휘된다. 세타파보다 더 느린 파장이 델타파(Delta waves)이다. 이때는 완전히 무의식으로 빠져든 상태이다. 델타파가 나올 때는 다량의 성장 호르몬이 방출되어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명상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화되고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검은 먹구름 같은 업장은 소멸되고, 마음 바탕은 청정하게 빛이 나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TEL 051)746-2256, 744-48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245-7 성담사 TEL 055)867-9999